

■ 제주 마을-참여와 자치의 기록 <10> 마을의 미래

# 숙의하고 풀어내는 경험 통해 마을 성장하길

### 리·통 '자기결정권' 구체적 실현되는 최소 행정단위 '풍요롭고 복된 마을' 만드는 주체는 다름아닌 마을

2012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있다. 제주도의 지역별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 간 특성 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다. 여기에는 제주도를 4개 권역으로 묶어 해당 균형발전방안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4개 권역은 제주시 동(洞) 권역, 서귀포시 동 권역, 조천읍·구좌읍·성산읍·남원읍·표선면·우도면의 제주 동부권역, 애월읍·한림읍·한경면·대정읍·안덕면·추자면의 제주 서부권역을 일컫는다. 해당 조례는 이들 권역에 대해 사회복지·보건 의료, 환경·도시·교통, 문화·관광, 산업경제, 교육 등 분야별 추진전략을 세우도록 했다. 자치도 출범으로 시·군이 통합되면서 이름이 지워진 지역들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자치법규이지만 실은 그보다 더 촘촘하게 분포한 마을들까지 그 발길이 닿아야 한다.

2022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있다. 제주도의 지역별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 간 특성 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다. 여기에는 제주도를 4개 권역으로 묶어 해당 균형발전방안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4개 권역은 제주시 동(洞) 권역, 서귀포시 동 권역, 조천읍·구좌읍·성산읍·남원읍·표선면·우도면의 제주 동부권역, 애월읍·한림읍·한경면·대정읍·안덕면·추자면의 제주 서부권역을 일컫는다. 해당 조례는 이들 권역에 대해 사회복지·보건 의료, 환경·도시·교통, 문화·관광, 산업경제, 교육 등 분야별 추진전략을 세우도록 했다. 자치도 출범으로 시·군이 통합되면서 이름이 지워진 지역들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자치법규이지만 실은 그보다 더 촘촘하게 분포한 마을들까지 그 발길이 닿아야 한다.

어떤 지역에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들을 세우거나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영리 목적의 사업을 추진할 때면 마을 여론이 움직인다. 마을에서는 선출된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원들이 쏟아낸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찬성이든, 반대든 마을의 결정을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 근래 제주에서 벌어지는 여러 개발 행위를 둘러싼 이해 충돌의 현장에서 그 같은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

기실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제주도 리·통, 반 설치 조례)로 정해진 것이다. 그에 따라 하나의 법정리를 2개 이상의 행정리로 하거나, 2개 이상의 법정리를 하나의 행정리로 운영할 수 있다. 행정리로 경계만 나눠졌을 뿐 마



서귀포시 서부 지역에 있는 군산오름에서 바라본 마을 전경.

은 나 홀로 존재하지 않고 맞물려 돌아간다. 그래서 한 마을의 결정은 또 다른 마을의 앞날을 흔들 수 있다.

제주연구원에서 2020년 11월 펴낸 '제주지역 마을운영규약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주제 연구보고서(현해경·라해문)에는 제주도민 대상 '제주형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내용이 실렸다. 설문 중 하나가 "마을의 주요 의사결정에 여성, 청소년, 이주민 등 개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을 1인 1표제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었다. 헌법에는 선거권이 1인 1표로 명시됐지만 마을운영규약의 주류는 여전히 세대당 1표이기 때문이다. 설문에 참여한 도민의 69.2%는

"1인 1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마을의 주요 의사결정에 "마을총회에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76.2%로 다수로 나타났다.

'자기결정권'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최소 행정 단위는 리와 통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 사회의 미래를 찾아야 할 곳이 있다면 바로 마을공동체다. 선대로부터 삶을 이어온 그 마을이 오래도록 남아있으려면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숙의를 통해 풀어나고 경험을 쌓아가며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이 자리 잡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주시 서부 지역 어느 행정리의 '향약'처럼 "풍요롭고 복된 마을"을 달성할 주체는 다름 아닌 그 마을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다.<글> 진성희기자



훼손된 제주특별자치도기 18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진입로에 개양된 제주를 상징하는 제주도기 전체가 훼손된 채 방치돼 있다.

## 11월 어업인 수당 1인당 40만원 지급

### 어제 제주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서 결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업인 수당 1인당 40만 원을 지역화폐로 타나는전으로 올해 11월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열고 연내에 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8월 중 어업인 수당 지급 지침을 수립해 신청접수 기간, 추진절차 등을 확정된 뒤 양 행정시에서 주민 홍보계획 등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고 11월 중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

준 제주도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어업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지급액은 어업인 1인당 연 40만원이며, 타나는전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 > 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거나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자 >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서귀포 불법 농지이용 행정처분 많을 듯

### 시 "법인·도외 거주자 포함 조사대상 대폭 확대"

서귀포시의 지난해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청문결과, '무늬만 농지'이거나 '가짜 농부' 등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불법 농지 이용에 대한 행정처분이 평년에 비해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차원에서 농사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제주도민은 물론 법인 및 도외 거주자를 포함해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2021년 분 정기 조사를 통한 청문 대상은 지역내 241필지·176ha다. 이에 대한 청문은 지난 6월 20~30일에 이뤄졌으며, 행정처분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시는 최근 4년간(2017~2020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2012필지·216.9ha에 대해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처분의무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1392필지·156.3ha를 처분유예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181필지·13.7ha에 대해 처분명령을 시행했다. 또한 439필지·46.9ha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및 철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농지이용에 따른 행정처분은 처분유예, 처분명령, 처분완료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행정유예를 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1년 이내 농사를 지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

면 6개월 이내 매도(처분명령)를 해야 한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와 토지감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실시한 농지 이용실태조사에서 법인과 타지역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주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며 "예년에 비해 농지를 구매하고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행정처분 대상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 국내육성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원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 향, 껍질 벗김이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리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화)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 하례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공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 제라몬** 향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걸로 평가되는 품종.
-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 과수농가 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공천, 흥진, 카리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하늘, 팔삭, 세이늘, 금굴,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몬,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문의: 010-4736-2329)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트묘, 화분묘 분양

사전에약 주문생산 탕빛1호, 선경, 선봉미, 미니몬, 무봉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농업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010-4736-2479 / 010-6500-2329  
 010-4736-2479 / 010-6500-2329

##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트묘목 공급]

**포트묘목?** ▶ 전부터 화상과 뿌리손상 방지 ▶ 미수익기간 단축 ▶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육묘시 적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에 종자를 파종해서 키운묘를 말합니다. 이식을 하지 않아 뿌리손상이 적고 전부터 화상에 좋으며 미수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리향 / 공천 유라조생 / 흥진 / 하굴 / 금굴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원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 사라향 / 제라몬 / 미니향

푸른지게농업농장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실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푸른지게 농업회사법인(주) 장원농장**

제1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술리 3083 / 제2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술리 2998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3-20-01호

**010-4450-4316 / 010-6550-4316**

## 감귤묘목 분양

※ 만감류

- 원터프린스 1년생
- 카리향 1년생
- 천혜향 1년생
- 한라봉 1년생
- 미니향 2년생
- 제라몬 2년생
- 하굴(아미나스) 1~4년생
- 황금향 1년생
- 레드향 1~2년생
- 탐나는봉 2년생
- 레몬 3년생
- 미니몬 1년생

※ 극조생 & 조생

- 공천조생 1~3년생
- 하례조생 1년생
- 오하라베리(공천변이) 1년생
- 유라조생 1~2년생
- 히노야카리 3년생

※ 포트묘목

- 유라조생, 원터프린스, 레드향, 한라봉 외

※ 탕자묘목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실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강정동 465-1, 1013-1, 2327-1 하예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010-8948-1082**